

海洋政策研究

Ocean Policy Research

Vol. 12

1997

目 次

卷 頭 言		
김진현	해양화의 전개와 초근대화의 요구	1
特別起稿		
David J. Whitmarsh	Marine Pollution Policy in the UK	5
研究論文		
Hak-Bong Chang	Issues on the Introduction of Zoning System onto Korea's Coastal Areas	19
황기형·조규남	우리나라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연구	41
윤동한·이광남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	75
정희수·최강원·김동선·김재수	한국서해안 시화호의 오염현황과 보전대책	123
정봉민	한·일 항만하역산업의 생산성분석; 부두운영 회사제 도입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165
전찬영	Structural VAR 모형을 이용한 건화물 운임 시장의 동적 특성분석	185
김창곤·홍동희·최종희	항만 대기시스템에서 시간분포의 통계적 검증에 대한 사례연구	205
Back, Gi-Chang	Consumer Demand for Fish, Red Meats and Chicken : A Case of Korea	217
부 록		
해양정책연구 총목차(창간호~11권2호)		231

卷 頭 言

해양화의 전개와 초근대화(超近代化)의 요구

김 진 현(金鎭炫)*

비록 분단된 반쪽이지만 대한민국은 늦게나마 근대경제성장과 정치의 민주화에 외형적으로 성공했다. 19세기 중반부터 밀어 닦친 서세동점의 물결 근대화의 역사과정에서 늘 실수만 하던 한민족이 처음으로 세계를 향하여 “성공”이란 기록으로 내놓을 만한 것은 1953년 휴전 이후 본격화된 경제성장이며 1980년대 이후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정치 민주화이고 1990년대부터 「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천재적 예술인들의 세계무대 등장 등이다.

이것도 자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강의 기적이라 표현되며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되고 있는 근대경제성장만 해도 외형과 지수가 아니라 이념과 가치, 비전 및 전략, 체제와 제도, 추진방식과 주체형성이라는 질 가치 체제에서 보면 주어진 것, 외형적, 타율적 때로는 일본 복사라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이 땅의 지식인 간에 왜 우리가 민족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 체제라야 하는지 검증해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와의 본격적 논쟁이나 시장경제와 정치체제와의 관계 등을 정권과 신념을 걸고 이념과 비전과 전략을 걸고 논쟁해 본적이 없다. 지식인간이나 하물며 정치인간이나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슴없이 나오고 민주주의 정착기에 박정희신드림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총칙 3의 토지정책 국유화와 제3장 경제조항을 보면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오히려 대한민국의 근대화성공은 1945년 분단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남쪽이 해양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삼팔선, 휴전선은 단순히 남북을 분단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겐 대륙을, 북쪽에겐 해양을 막은 것이다. 한국의 긴 역사에서 대륙이 본원인 것처럼, 소중화(小中華)로 자족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졌던 역사에서 해방후 근대의 최첨단인 미국에 의하여 남쪽은 해양화의 길로 들어서고(북한은 러시아에 의하여 대륙화가 지속되고) 역사의 본원과 정상에서 이탈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인류문명과 역사의 주류는 대륙의 것이 아니었다. 대륙과 해양의 경쟁은 이제 끝이었다. 대륙은 땅·농사·중앙집권·보수주의·국가주의·군국주의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바다는 변화하고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용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이고 자유를 숨쉬게 한다.

사람·상품·서비스·문화가 교류하고 이전하는 시대에는 해양성이 대륙성을, 해양문화가 대륙문화를 압도한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화두(話頭)들은 모두 해양문화와 관련된다. 수출·무역·자유무역지대·조선·해운·원양어선·간척지·임해공단, 그리고 자유·민주·시장·인권·UN·GATT·IMF·IBRD.....

신라흥덕왕때(828년)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중국(당)에 신라방을 설치한 후 1천 1백여년만의 해양화의 부활이다. 다만 신라의 청해진과 신라방은 장보고라는 한사람의 영웅에 의하여 이룩된 일회적인 것이라면 해방후 대한민국에서 성공 정착된 해양화는 가치와 제도의 조류는 미국이며 방식은 원조와 지배를 통한 타율이며 플레이어는 이승만, 장 면, 박정희로 이루어진 복합적 산물이요 흐름이다.

이제 세계인류의 문명사는 근대를 넘어서고 있다. 탈근대, 초근대, 근대이후 또는 정보화시대, 탈공업시대, 지구촌시대, 환경의 시대라는 말들로 미래를 점치고 있다. 확실히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일은 단순히 21세기가 아니다. 한 산업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산업시대로 가는 것만이 아니다. 인구, 에너지, 식량, 쓰레기, 100억 인간의 민주정치, 100억 인간의 도시생활, 100억 인간의 교육과 복지욕구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우리는 이제 근대화, 성장, 발전, 진보, 「잘 산다는 것」의 의미들을 재음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미 상품값보다 인간값이, 인간값보다 자연의 값이 더 비싼 세상으로 바

뛰었다. 중국, 인도, 특히 이웃한 중국의 뒤늦은 해양화, 공업화 질주에서 오는 세계적 파동, 경제무역, 생산, 에너지, 식량, 공해, 인구이동에서 줄 충격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을 생각해 보아도 한국과 한민족은 생존과 자율을 지키기 위해서도 근대이전과 근대화의 길도 아닌 새 미래의 인류문화를 자율적 자생적 주체적으로 「창조」,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

탈냉전 이후의 변모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히 변화되는 미중, 미일, 일중, 미러, 중러, 일러 관계 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민족적 독립의 과제이다. 중화주의질서, 서구제국주의질서, 냉전질서라는 타율적 질서에서만 살아오던 우리는 이제 진정 독립의 새질서, 자율, 주체의 새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힘을 만들어야 한다.